

공존

세계인과 소통하는 공감매거진
Korea Immigration Service Magazine

공존초대석

당구 여제, 캄보디아택,
스룽 피아비 Sruong Pheavy

Vol.049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

모든 구성원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꿈꿉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8월입니다.

무더위에 지치기 쉬울 때이지만, 연초에 다짐했던 목표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되돌아보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남은 하반기를 맞이해보는 건 어떨까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올해 상반기,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고 재외동포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일제 강점기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 항일 독립운동을 펼친 독립유공자 후손 39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여 국내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외국국적동포의 외국인등록증과 거소신고증에 영문 성명과 함께 일상 생활에서 호명되는 한글 성명을 병기하여 생활 편의를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구직을 기피하는 3D 업종과 창업 초기 스타트업 업체가 외국 숙련인력을 쉽게 고용할 수 있도록 비자 규제를 개선하고, 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허용인원을 확대하여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국민과 재한외국인의 목소리에 세심히 귀 기울여, 모든 사회 구성원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존 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차 규 근**

공존

Vol.049

〈공존〉 통권 제49호 비매품
편집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
발행일 2019년 8월 | 발행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Tel 02-2110-4019
홈페이지 www.immigration.go.kr
기획 및 디자인 (주)더세븐파트너스
Tel 02-336-7703
인쇄 문력인쇄 Tel 02-462-8980

- 02 에디터 메시지**
모든 구성원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꿈꿉니다
- 04 공존 초대석**
당구여제 캄보디아택, 스롱 피아비(Sruong Pheavy)
- 08 공존 포커스**
제 12회 세계인의 날 현장 스케치
- 12 행복드림을 찾아서**
함께라서 두렵지 않은 유학생 사총사
- 15 카드뉴스**
정책 고객의 불편, 이렇게 개선했습니다
- 18 정책가이드**
농어촌의 든든한 버팀목,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 21 출입국 Q&A**
알아두면 유용한 출입국 상식
- 22 친절 바이러스**
신뢰를 잃으면 도울 방법도 없다 이정현 직원 외
- 24 출입국 탐방**
안산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를 찾아서
- 28 출입국 뉴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주요 소식
- 30 공존이벤트**
영화에매권을 잡아라
- 31 영화로 배우는 한국**
〈기생충〉을 이해한다면 당신, 뽕속까지 한국인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www.immigration.go.kr
-  페이스북
www.facebook.com/immigration.kr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대한민국 비자포털
www.visa.go.kr
-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
-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
www.ses.go.kr

210g에 꿈을 싣고

당구 여제,
캄보디아댁,
스룽 피아비 *Sruong Pheavy*



몇 년 전, 한국 당구계에 혜성처럼 등장한 얼굴도, 이름도 낯선 그녀는 월등한 실력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 당구계를 놀라게 만들었다. 캄보디아에서 나고 자랐으나 한국에서 활짝 날개를 펴고 있는 결혼 10년차 스룽 피아비 선수의 드라마 같은 인생 스토리를 들어보았다.
글 김경주 사진 나우연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자세를 낮추고, 210g 무게의 당구공을 바라보는 날카로운 눈빛에는 한치의 망설임이 없다. 탕! 하는 묵직한 소리(큐대와 당구공의 마찰음)와 동시에 굴러간 공이 목표한 다른 공을 정확히 맞춘다. 캄보디아인 당구선수 스룽 피아비 씨의 깔끔한 실력이다. 평범한 결혼이주여성이었던 피아비 씨는 남편 따라간 당구장에서 처음 큐대를 잡았고, 자신도 몰랐던 당구 재능을 발견했다. 당구에 본격적으로 입문한지 약 5년여 만에 캐롬(3쿠션) 종목 국내 랭킹 1위, 세계 랭킹 3위라는 성적을 거둔 것이다.

그녀는 집안 사정이 어려워 학업을 중단하고 아버지의 농사를 도우며 살았던 삶을 생각하면 지금의 모습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는다고 했다. “캄보디아 사람이 한국 당구계에서 1위에 오르다니...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한국은 물론이고 캄보디아에서도 그녀는 유명 스포츠 스타가 됐다.

고마운 사람들, 한국에서 만난 귀한 인연

제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다고 해도 그 능력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는 것이 중요한데, 피아비 씨는 행운아였다. 아내의 자질을 일찍부터 알아본 남편은 당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녀를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바깥일은 물론 집안일까지 모두 도맡고 아내가 당구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좋은 스승도 모셨다. 남편의 배려 속에서 하루 12시간씩 매일 연습한 피아비 씨는 단기간에 정상에 오를 수 있었다. “당구 연습으로 힘들 때 가장 의지하는 사람도 남편이에요. 항상 힘을 낼 수 있는 말을 해주고, 조언도 해주거든요. 남편이 저보다 당구는 못 치지만 제가 잘 모르는 이론을 잘 알아요. 제가 부족한 부분을 알려주고 해결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죠. 남편에게 항상 감사할 뿐이에요.”

당구계에서 조금씩 두각을 나타낼 때쯤, 피아비 씨는 또 하나의 귀한 인연을 만났다. 그녀의 당구 시합을 본 당구용품점 ‘빌킹코리아’가 선수의 잠재력을 보고 후원과 매니지먼트를 제안한 것이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는 최현희 기획실장은 피아비 씨의 선수생활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다. “제가 본 피아비는 실력도 출중하지만 성실하고 마음씨가 착해요. 후원해주는 모든 분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거든요. 그만큼의 성과도 냈고요.” 더불어 피아비 선수의 등장은 같은



사진출처 : Billiards

대한당구연맹 소속 여자 선수들의 실력까지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고무적인 효과를 가져와 한국 당구계가 한층 발전한 것 같으며 뿌듯함을 감추지 못했다.

최 실장은 피아비 씨가 점점 주목을 받게 되면서 고민이 많아졌다. 그녀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선수 생활이 흔들릴까 우려되는 것이다. 최대한 선수를 위하는 길을 찾겠다는 최현희 기획실장에게서 피아비 선수를 단순한 소속 선수가 아니라 가족처럼, 친딸처럼 여기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최근 몇 년간 피아비 씨의 생활은 당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결혼 초에는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들이 그렇듯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든 시간을 보냈다. 한국에 온 지 벌써 10년, 이제는 실력 있는 당구선수이자 한식까지 똑딱 만들어내는 한국 주부로 성장했다. “원래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해요. 된장찌개, 미역국, 잡채, 나물 무침도 할 줄 알죠. 만들기 쉽고 몸에도 좋은 한국 음식을 캄보디아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만들기도 어렵고 재료값이 많이 들어가는 캄보디아 음식보다 한국 음식이 경제적이라고 덧붙였다.

음식뿐만 아니라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고국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이 좀더 도전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도 자연스레 커졌다. 피아비 씨는 이러한 마음을 곧장 행동으로 옮겼다. 상금으로 받은 돈으로 캄보디아 아이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학교를 지을 땅을 산 것이다. 아직 첫걸음만 단계지만 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그녀의 의지는 누구보다



강하다. “캄보디아에도 다양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 재능을 펼칠 기회가 없을 뿐이죠. 학교 설립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이들을 위해 포기하지 않으려고요.” 이러한 마음이 통해서일까. 지난 5월, 피아비 씨는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휴먼브리지의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다.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어 든든하다는 그녀. NGO 활동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동참할 예정이다.

인터뷰 내내 피아비 씨는 나를 먼저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자신에게 복이 돌아올 거라고 강조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기회가 온다고 생각해요.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항상 강조하고 있어요.” 그녀는 아이들에게 노력으로, 실력으로 더 크게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

그녀의 목표는 모든 스포츠 선수들의 최종 목표, 세계 랭킹 1위가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만 결혼이주여성과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기 위해 기꺼이 그 무게를 감당하고 있다.

“한국은 저에게 기회를 준 곳이에요. 두번째 고향이나 다름없죠. 한국과 캄보디아, 두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당구선수로 더욱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아비 씨가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녀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한국과 캄보디아, 양국이 모두 자랑스러워하는 멋진 여성으로 더 큰 꿈을 향해 쉽없이 날갯짓하는 피아비 선수를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응원하길, 반드시 그 꿈이 이뤄지길 간절히 바라본다.

새파란 하늘 아래서 눈부신 꿈을 그려본다

제12회 세계인의 날 현장 스케치

‘꿈꾸며 하나되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 열두 번째를 맞은 5월 20일 세계인의 날은 이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100년 전 외친 광복의 꿈이 이루어진 땅에 모인 세계인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꿈꾸는 이들이 모인 축제의 현장으로 가보자.

글 박지형 사진 김윤희

12번째 생일, 하늘도 새파랗게 축하를

화창한 5월의 봄날, 서울 양재 시민의 숲 인근에 위치한 더케이아트홀에서 제12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 행사가 열렸다. 여러 부스가 열린 잔디밭은 너른 숲만큼이나 선명한 초록빛을 뽐내며 인파를 반겼다. 2019년 세계인의 날 키워드는 바로 ‘꿈’. 올해는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해인 만큼 100년 전 하나되어 영원한 민족의 꿈을 기억하고, 지금 세계인이 모여 함께 꾸는 꿈을 응원하는 자리로 꾸몄다. 세계인이 한데 모이는 축제를 여는 것은 곧 꿈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한국의 광복을 위해 노력한 세계의 독립운동가를 소개하는 특별 전시를 비롯해 세계 의복 및 놀이 체험, 가면 만들기 등 16개의 프로그램이 야외 부스에서 열렸다. 네일아트, 페이스페인팅 부스는 특히 기다리는 사람으로 북적였다. 청명한 날씨 덕인지 모두가 밝은 표정을 띤 가운데 각국의 전통 의상과 모자를 착용한 채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사회통합협의회에서는 조화를 상징하는 무지개떡을 나누어 주었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투자이민 관련 상담을 진행했다. 한편 중앙 무대에서는 공연이 한창. 중국 가면극부터 케이팝 댄스, 삼바 춤, 훌라후프 공연까지, 신나는 음악과 박수 소리가 바람을 따라 퍼져 나갔다.

공존을 꿈꾸는 사람들

오후 2시, 아트홀에서 기념식이 시작됐다. 진행은 코미디언이자 다문화 이해 교육 강사로 활동하는 정철규 씨와 영어 전문 MC 유은영 씨가 맡았다. 연례 행



사담계 전국에서 온 참가자들이 자리를 채운 가운데, 재정착 난민 학생들로 구성된 하울립 합창단이 노래로 시작을 알렸다. 참석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 정성호 의원, 주한 캐나다 대사를 비롯한 9개국 대사는 손을 흔들며 객석에 인사를 건넸다.



이어지는 순서는 유공자 포상으로 17명의 수상자가 무대에 올라 박상기 장관에게 표창을 받았다. '올해의 이민자상' 주인공은 천주교 안동교구의 두봉 르네 마리 알베르(Dupont René Marie Albert) 주교. 1953년 사제 서품을 받은 뒤 1954년 한국으로 건너와 경북 북부의 농어촌 교육, 의료 사업 지원에 앞장선 인물이다. 1969년 경북 안동 교구의 초대 교구장으로 임명되어 1990년 은퇴할 때까지 안동 지역 농민회관, 상지여자전문학교(현 가톨릭상지대학교)와 상지여자중고등학교 설립, 한센병 환자를 위한 다미안 피부과의원 개원 등 지역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두봉 주교와 함께 성동외국인 근로자센터의 이은하 사무국장과 한국소비자원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문화적 다양성을 노래하다

시상이 끝나고 박상기 장관의 기념사와 정성호 의원, 마이클 대나허(Michael Danagher) 주한 캐나다 대사의 축사가 이어졌다. 박상기 장관은 국가 간 인구 이동이 일상화되고 보편화되는 '이주의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이민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앞으로 국민과 외국인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성호 의원은 축하 인사와 함께 국경이라는 말이 무색해진 다문화 시대에 서로 '그들'이 아닌 '우리들'인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이클 대나허 대사는 계속해서 이민자를 받아들이며 경제에 활력을 얻은 캐나다의 상황을 설명하며 문화적 다양성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다음 순서는 관객의 반응이 뜨거웠던 축하 공연. 타악그룹 '고리'는 배경 영상을 무대 장치로 활용해 전통 북을 치는 힘찬 퍼포먼스를 선보여 박수갈채를 받았다. 두 번째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그룹 '한글'의 무대. 친숙한 한국 영화 주제곡을 영어와 한국어는 물론 농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수화로 노래했다.

피날레를 장식한 어린이 뮤지컬팀 리틀용인은 캣츠, 레미제라블, 라이온킹 등 유명 뮤지컬의 한 장면을 멋지게 공연했다. 또한 창작 뮤지컬 '우리 모두 함께' 무대에서 마음으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세상을 노래하며 세계 각국의 국기를 흔들었다. 공연 막바지에는 박상기 장관을 비롯한 인사들이 무대에 올라 세계인의 날 깃발을 다 같이 흔드는 기념 세레머니와 함께 행사를 마무리 지었다.

올해 세계인의 날 기념 공모전은 '당신의 대한민국을 보여주세요'라는 주제로 수기와 사진뿐 아니라 동영상 부문까지 그 범위를 확대했다. 덕분에 더욱 다양한 채널에서 국민과 재한외국인의 공존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는 수확을 얻었다. 한 영상에서 주인공은 말한다. "세계 한국은 꿈이라고 생각해요." 꿈꾸는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이는 한 축제는 계속될 것이다.





함께라서 두렵지 않은 유학생 사총사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도응역꾸인, 보티탄휘엔, 우인타냏레, 황미은

하나의 영상을 만드는 데는 각본, 섭외, 촬영, 편집, 연출 등 다양한 과정이 따른다.

홀로 모든 일을 해내기는 어렵다. 우리의 삶도 그렇다. 더구나 낯선 나라에서 학업과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유학생이라면 혼자라는 무게는 더 버겁다. 그럴 때 우정은 더없이 큰 힘이 된다.

서로에게 든든한 친구이자 믿음직한 팀원이 되어주는 네 사람, 제12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

동영상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베트남 유학생 사총사를 만났다.

글 박지형 사진 나우연

2019년 세계인의 날 축제 현장에서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여러 편 소개되었다. 그중 유학생의 생활을 조명한 영상이 있었으니,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에 재학 중인 베트남 출신 유학생 도응역꾸인(Doan Ngoc Quynh), 보티탄휘엔(Vo Thi Thanh Huyen), 우인타냏레(Nguyen Thi Nhat Le), 황미은(Huynh My Ngan), 네 사람의 합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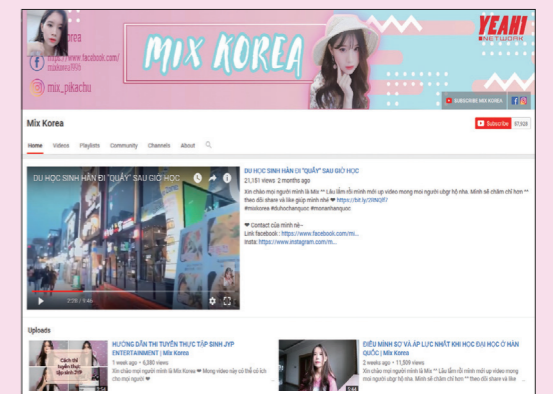
인터뷰 형식의 영상에서 주인공은 학업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유학생. 끼니를 거르거나 외로움에 방황할 때도 있지만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건 혼자가 아니라 는 걸 깨닫는 순간이 있어서다. 이 3분 분량의 영상에 담긴 일화와 고민은 모두 네 사람의 경험담이라고 한다. 밝기만 한 내용보다는 실제로 유학생이 겪는 어려움과 극복 과정을 담는 것. 그것이 프로젝트의 지향점이었다. 한국에서 생활하며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지 몰라 막막했던 나날들도 있었지만, 힘든 순간들을 극복하며 이들은 한 발짝씩 나아가고 있었다.

손발이 척척, 자신만만 팀워크

네 사람은 각각 2015, 2016년에 처음 한국으로 왔고, 대학에서 만났다. 타지에서 만난 같은 나라 출신이라 자연스레 가까워졌다. 친한 친구지만 공동 작업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영상 수업 과제를 위해 팀을 이루어 공모전에 참여하게 된 것. 일단 팀을 꾸리자 자연스럽게 역할이 나뉘었다. 유튜브로 활동 중인 닌레 씨가 연기, 영화감독을 꿈꾸는 꾸인 씨는 감독과 각본, 휘엔 씨는 촬영과 편집, 황미은 씨는 진행을 맡았다. 아이디어를 나누며 윤곽을 잡았고 각본 작업과 장비 대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생생한 한국 이야기, 유튜브로 전한다

닌레 씨는 베트남어로 한국에서의 일상을 전하는 유튜브 채널, 'Mix Korea'의 크리에이터다. 구독자는 어느덧 5만을 넘어 6만 명을 향해 가는 중. 한국의 문화나 유학 생활 정보를 이야기로 풀어내 베트남 시청자의 궁금증을 해소하는가 하면, 서울의 명동·홍대 등 번화가를 구경하고 한국 음식점에 방문하는 일상의 모습을 담아 생생한 서울의 현재를 전달한다. 현재 가장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한 영상은 오디션에 위해 연예 기획사에 찾아가는 방문기. 조회 수 100만이라는 압도적인 숫자에서 케이팝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광화문 광장, 한강대교, 낙산공원 등 아름다운 서울의 풍경을 담은 장면이 눈에 띈다. 네 사람이 가본 곳 중 서울의 멋진 장소를 선정한 결과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장소는 마지막 장면을 찍은 낙산공원. “새벽 5시부터 힘들게 걸어서 언덕을 올라갔는데 알고 보니 버스가 다니더라고요.” 그때의 허탈함도 지금은 웃을 수 있는 추억으로 남았다. 추위가 가시지 않았던 3월에 힘들게 촬영을 마친 네 사람은 사실 수상을 예감했다고 밝혔다.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

신 있었어요.” 내심 최우수상을 기대했다는 솔직한 답변이 잇따른다. 한국인 친구가 자막 검수를 도와준 것 외에는 온전히 네 사람이 만들어낸 결과물이기에 자부심이 크다. 이들은 지금까지 학과에서 미디어 이론을 비롯해 언론, 광고, 방송 제작 등 매체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배웠다. 하지만 대학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여전히 한국어다. 영상을 제작하는 실습수업은 즐겁지만 서술형 시험 문제와 발표 앞에서는 늘 진땀이 난다. 유학생 선배로서 한국 유학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조언을 부탁하자 이구동성으로 답한다. “한국어를 더 많이 공부하세요!” 그렇지만 희망을 전하는 것도 빼놓지 않는 네 사람이다. “우리도 해냈으니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버팀목은 꿈, 그리고 친구

함께 공부하는 네 사람이지만 꿈은 저마다 다르다. 유튜브로 한국 생활을 소개하고 있는 낯레 씨는 1인 미디어 활동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베트남에서 기사를 꿈꿨던 휘엔 씨는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마케팅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황미은 씨는 사람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상황을 관리하는 능력을 발휘해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일하고자 한다. 베트남 예술학교를 졸업한 후 한국에서 공부를 이어가고 있는 꾸인 씨는 <신과 함께>, <아이 캔 스피크>처럼 따뜻한 영화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타지 생활에 외롭고 힘들지만 각자의 목표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빛은 적어도 함께 있을 때만큼은 걱정을 잊은 것처럼 보인다. 촬영 일화를 소개할 때는 연신 웃으며 이야기를 덧붙이고 평소에 전하지 못했던 진심을 서로에게 전할 때는 함께 눈물짓는 친구들. 무엇보다 한국에서 좋은 친구를 얻어 기쁘다는 네 사람은 모두가 “꽃길만 걷기”를 소망한다.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해나가자고 서로를 독려하는 돈독한 우정이 있기에 네 사람은 외롭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니까.

정책고객의 불편, 이렇게 개선했습니다

1

외국인 고용하는 스타트업 기업, 매출실적 심사유예 5년으로 연장



기존 스타트업 업체는 최대 2년간 매출실적이 없어도 외국 전문 인력의 고용 허용

개선 창업 초기 소규모 스타트업 업체 지원을 위해 매출실적 심사유예 기간을 5년으로 연장

2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인원 및 신청대상 확대



기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어에서 가구당 최대 4명만 신청 가능

개선 영농·영어조합 법인도 신청 가능하도록 확대, 가구(법인) 당 최대 허용인원을 5명으로 확대

3

외국인등록증 한글성명 병기



기존 재한학교와 외국국적동포의 외국인등록증 상 성명과 일상생활에서 호명되는 성명의 차이로 인한 불편 발생

개선 재한학교와 외국국적동포의 외국인등록증에 일상생활에서 호명되는 한자의 한글식 성명을 병기

4

재입국허가 기간 내 미입국 결혼이민자 서류 간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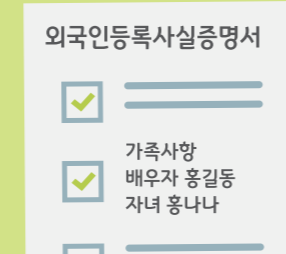


기존 동일한 국민과 정상적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결혼이민자가 재입국허가 기간 초과로 사증을 재발급 받거나 체류자격을 변경할 경우 최초 결혼이민사증 신청시 제출 서류를 동일하게 징구

개선 소득요건, 외국인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한국어 구사요건 등 **제출 서류 일부 면제**

5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가족사항 란에 국내 가족 표출



기존 초등학교 입학, 이동통신요금 가족결합 등 동거가족 입증 필요시, 외국인은 입증에 어려움이 많음

개선 사증발급 또는 체류자격변경 심사과정에서 **가족관계가 확인된 외국인**은 등록사실증명서에 해당 동거가족 사항 기재

8

외국인 여권정보 변경신고 간소화




기존 외국인의 여권정보 변경신고는 온라인(하이코리아)으로 가능하지만, 갱신된 여권을 스캔 첨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불편

개선 온라인을 통해 변경된 **여권번호 등을 직접 입력**하면 신고절차가 완료되도록 간소화

9

외국인 관광객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개선




기존 자동출입국심사대는 7세 이상 국민과 17세 이상 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만 이용 가능, 19세 이상 국민과 17세 이상 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은 사전등록 면제

개선 국내 입국시 얼굴과 지문정보를 제공한 17세 이상 외국인 관광객이 주요 공항만*으로 출국 시 **사전등록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인천·김해·김포·제주·대구공항 및 부산항)

6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기재 방식 개선




기존 외국인의 변경된 국내 체류지를 등록증 후면에 직접 인쇄함에 따라, 체류지 기재란(5칸) 초과시 재발급 비용(3만원) 발생

개선 등록증의 체류지 기재방식을 뒷면에 **체류지가 기재된 라벨지를 탈부착하는 방식**으로 변경

7

재입국허가 온라인민원 허용



기존 심사가 쉽고 즉시 처리가 가능함에도 복수재입국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 출입국 기관을 방문해야만 가능

개선 **온라인(하이코리아)을 통해 쉽고 빠르게 복수재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10

외국인 선원의 어획물 건조·포장 연계 작업 허용



기존 외국인 어선원(E-10-2)은 「선원법」상 선박근무만 허용하여, 육상에서 건조·포장작업이 필수적인 특정어업 분야에서의 외국인 어선원 고용 제한

개선 일정요건을 갖춘 어선원(E-10-2)에 대하여 **선상 근무뿐만 아니라 육상근무도 가능하도록 개선**

11

외국인 기업투자 비자 규제 개선



기존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임원·관리자 등 근무인원을 투자금액으로 차등 적용(1억원 당 1명)하여 외국인 투자 활성화에 장애

개선 투자금액뿐만 아니라 국민고용, 납세실적 등에 따라 **외국인 임원·관리자 등 근무인원 추가 허용** (6개월 이상 고용한 국민 3명 당 1명, 연간 납세실적 1억원 당 1명 등)



일손 부족한 농어촌의 든든한 버팀목,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일손이 부족한 우리나라 농어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지난 2015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농어촌의 수확·파종기, 성어기 등 집중적으로 인력수요가 많은 시기에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간(90일 이하)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농어번기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농어민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나?

2015년 처음으로 시범 시행한 이래 2019년까지 총 8,33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투입되어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허용 대상과 인원은?

내국인 구인이 어려워 인력이 부족한 농·어업 운영 가구, 영농·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가구·법인당 연간 최대 5명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상과 요건은?

해외 체류 외국인의 경우, 국내 지자체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외국 지자체의 주민 또는 지자체 관내 결혼이민자의 가족(4촌 이내, 배우자 포함) 중 30세 이상 55세 이하의 외국인이어야 하며, 국내 체류 외국인의 경우, 지자체 관내 결혼이민자 또는 외국국적동포의 가족(4촌 이내, 배우자 포함) 중 19세 이상 55세 이하의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신청과 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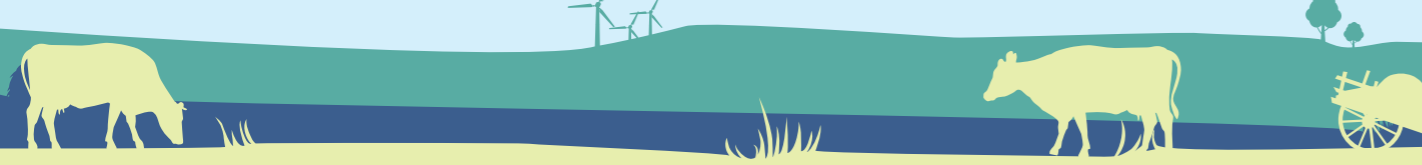
신청 주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이며, 상반기(2~3월)에 1년간 필요한 계절근로자에 대해 신청을 받고, 상반기에 신청하지 않은 지자체나 농·어가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하반기(6~7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법무부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와 함께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자체의 관리능력, 이탈·인권침해 방지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지자체별 도입인원을 배정합니다.

연도별 계절근로자 운영 현황

구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지자체 수(개)	113	1	8	21	42	41
계절근로자 수(명)	8,338	19	200	1,086	2,822	1,614

※2015년, 2016년은 시범 실시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불법체류를 막기 위한 대책은?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기본적인 권리를 향유하면서 근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계절근로자 사용 지자체 및 농·어가 필수 준수지침」을 제정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규정 준수여부에 대해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농·어가(법인)와 관련 지자체는 차기 계절근로자 신청 시 배정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여 인권침해와 불법체류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계절근로자 시범사업 기간인 '15~'16년 219명이 입국하여 4명이 이탈하였고, '17~'18년에는 3,908명이 입국하여 23명이 이탈하는 등 매우 낮은 불법체류율(2.8%)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절근로자 제도 이용 지자체 및 농·어가 필수 준수지침

- 숙소로 사용할 수 없는 부적합 시설(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제공 금지
- 법정 최저임금 이상 및 근로기준법 상 초과 휴일근무 수당 지급, 산재보험 의무적 가입
- 휴게 시간(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및 휴일(매 30일마다 최소 2일 이상) 보장
- 외국인 계절근로자 여권보관 금지, 인권침해(폭행, 성희롱, 성폭력 등) 금지 등

Mini Interview

담당자(체류관리과 이종철 사무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농어가의 장기 인력 고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농어업 작업 유형에 맞춰 필요한 인력을 단기간 동안 활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 및 운영·관리 주체를 지자체에 부여함으로써, 농어가 입장에서는 외국인 초청 등의 복잡한 행정절차 부담을 덜고, 계절근로자 입장에서는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관리 주체가 생겨 좋은 거죠.

농·어업도 노후가 중요하므로 이미 파견 경험이 있는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만을 계절근로자로 선정하도록 하여 작업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고용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계절근로자에게 더블비자를 발급하여 1차 고용이 만료되면 2차로 재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으며, 성실 근로자에 대한 지자체의 재추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재추천 권한을 적극 활용하여 유경험 계절근로자가 여러 번 입국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농어가의 만족도도 매우 높았습니다.

향후 계절근로자 허용인원, 근로기간 확대 등 개선 계획은?

지자체와 농어가,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0년부터 최대 허용인원을 현행 5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고, 계절근로자 불법체류율이 낮고 인권침해 사례가 없는 지자체의 고용주에게는 최대 허용인원을 7명까지 배정하고, 8세 미만 자녀(임신 포함)가 있는 고용주에게는 1명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대 5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장기 체류자격 신설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협의 중입니다.



← 알아두면 유용한 출입국 상식 🔍

궁금해요 출입국

외국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유학생과 여학연수생은 1주당 20시간(인증대학은 25시간), 석·박사 과정은 1주당 30시간(인증대학은 35시간) 범위 내에서 사전에 출입국기관의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은 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해요 출입국

외국인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고용센터와 출입국에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2014년 6월부터 고용변동신고 일원화가 시행되고 있어, 출입국과 고용센터 중 한 곳에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궁금해요 출입국

등록외국인이 본국에 다녀올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출국 후 최대 1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재입국허가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남아있는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을 경우에는 남아 있는 체류기간 안에 입국해야 합니다

궁금해요 출입국

외국인(외국국적동포)의 체류지 변경 신고는 출입국 기관에서만 할 수 있나요?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 기관 뿐만 아니라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궁금해요 출입국

외국인등록 후 등록증이 발급되기 전 본국을 다녀올 수 있나요?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등록을 완료한 상태라면, 출입국 기관 또는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출국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출입국 · 외국인청 한혜성씨를 칭찬합니다

2019. 4. 1. 정재운

인천출입국 · 외국인청 체류실 내의 행정사 대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혜성씨를 칭찬합니다. 한혜성씨는 업무에 대한 지식과 소신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신속하고 완벽하게 처리하면서도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공무원입니다. 어느 한 단면만 보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들의 공통적인 인식입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친절하게 안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한혜성 공무원은 불쾌감을 주지 않고 보충서류를 요구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줌으로써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친절, 봉사 정신을 실천하는 우수한 공무원입니다.



한혜성_서울청

친절 왕의 한마디

민원인의 금같은 시간을 내 시간처럼 여긴다

Q. 인천출입국 · 외국인청에서 근무할 때는 어떤 업무를 맡았고, 평소 어떤 마음가짐으로 업무를 수행하는지?

체류실에서 행정사 대행업무를 담당했고, 평소 민원업무를 수행할 때 저는 바쁜 시간을 쪼개어 방문한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정확한 민원 안내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Q. 민원인을 응대할 때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민원 발생에 유의하는 거죠. 민원 불만의 대부분은 공감능력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것 같아요. 민원인 입장에서 조금 더 공감하려 노력하면 민원인도 자기주장만 내세우며 화를 내기보다 상황을 받아들이고 쉽게 수긍하는 것 같거든요.

Q. 일하면서 힘들거나 보람을 느끼는 점이 있다면?

제 업무에 충실했을 뿐 특별한 도움을 드린 것도 아닌데 계속 감사하다며 인사를 하고 가는 민원인을 만나면 저 또한 마음이 기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207호 보호외국인 일동이 소장님께

2019. 6. 17. 여수출입국 · 외국인사무소 보호외국인

경애하는 소장님, 저희는 '미스터리'가 이 방에 있는 모든 보호외국인들을 위하여 열심히 도와주는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본국으로 돌아가는 날만 기다리는 저희들을 위해 신속하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보호외국인들 모두가 열심히 일을 하는 그를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스터리'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친절 왕의 한마디

신뢰를 잃는 순간, 고충 해결도 어렵다

Q. 여수출입국 · 외국인사무소에서 본인의 업무는?

사범과에 근무하며,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 대기 중인 외국인의 고충을 해결하여 그들이 만족하고 하루 빨리 고향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입니다. 오랜 기간 불법체류를 하다보면, 여권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아예 잃어버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해당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여행증을 신청하는 것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Q. 보호외국인 관리 업무에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신뢰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고충담당관이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처지를 이해하고 부당한 처우에 같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신뢰도 얻기 힘들죠. 그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순간, 더 이상 그들을 돕기도 어렵구요. 고충이 해결된 보호외국인이 공항행 버스에 오르며 고향의 가족을 만난다는 생각에 설레는 표정을 볼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Q. 기억에 남는 보호외국인이 있다면?

제가 처음으로 고향에 돌려보낸 장기보호외국인이 있는데, 체불임금 문제로 수개월 동안 출국을 못하고 있던 몽골출신이었죠. 2주가 넘게 늦은 밤까지 이리저리 뛰어다녀 고충이 해결됐고 결국 고향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 분이 헤어질 때 몇 번을 고맙다며 인사하고, 저와 포옹을 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 때 그 눈빛이 제가 지금까지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정현_여수사무소

다문화특구 안산의 플러스, 외국인 지원 서비스 종합백화점!

안산다문화이주민+센터

50,000명이 넘는 외국인이 거주하는 대표 다문화 도시 안산. 특히 안산시 단원구의 등록외국인 수는 44,373명(2019년 6월 기준)으로, 지역구 중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이런 특징 때문일까, 다문화특구 단원구 원곡동에 외국인 관련 민원 업무를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센터가 2017년 12월 문을 열었다. 지방자치단체와 고용노동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힘을 합친 결과, 한 건물에서 외국인 체류 민원, 고용허가, 한국어 교육, 법률 상담까지 가능해졌다. 공존의 중심지에서 수많은 외국인을 맞이하고 있는 안산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를 들여다보았다.

글 박지형 사진 김윤희

중국어 간판과 표지판이 빼곡한 원곡동 주택가를 지나 단연 눈에 띄는 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를 찾았다. 방문자가 많은 오전 시간이 지났는데도 유현송 센터장과 다섯 직원은 3층 센터에 옹기종기 붙어 앉아 업무를 처리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민원인을 위한 최적의 공간, 원스톱 지원 센터

유현송 센터장 안산은 2009년 원곡동 일대가 다문화특구로 지정되었고 여전히 외국인의 유입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플러스센터가 만들어지던 초창기인 2017년에 12월에 개소하게 되었죠. 출입국은 이곳 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 3층에서 5개 창구를 운영하고, 하루 평균 2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상득 팀장 플러스센터에서 출입국과 고용노동지청

이 각각 창구를 운영하고 있어요. 민원인은 고용노동지청 창구에서 먼저 고용허가서를 받고 바로 출입국 창구에서 체류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니 더욱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죠.

유현송 이 건물에는 플러스센터뿐 아니라 재한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있습니다. 2층의 상담지원센터에서 법률 상담을, 지하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을 진행해요. 1층 보건소에서는 목요일마다 외



국인 무료 진료를 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한 건물에서 각종 지원과 상담이 이뤄지는 거죠.

하리원 계장 그래서 플러스센터는 100% 민원인의 편리를 위한 공간이라 할 수 있어요. 저희 관할 지역이 안산시와 시흥시인데 지난 4월 시흥에 플러스센터가 개소하면서 방문자가 분산되어 업무가 수월해졌어요.

최상득 보통 출장소와 차별화되는 플러스센터만의 특징은 건물에 있는 타 기관과의 협업이 활발하다는 점이에요.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면 2층 지원센터에서 업무 문의를 요청하는데 함께 상담해서 해결 방안을 찾기도 하죠. 적극적으로 행정 업무를 처리할 기회가 많습니다.

권순길 사무국장(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저도 플러스센터의 수혜자 중 하나예요. 변경된 출입국·체류 관련 법 등을 모르는 경우에 곤장 가서 도움을 받으며 상부상조하고 있습니다. 출입국이 들어서며 방문 건수가 500건 이상 증가했으니 이주민에게는 더 큰 혜

택이겠죠.

유현송 여러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니 빠른 해결이 가능하답니다.

성창영 반장 또, 지원센터의 통역 서비스가 민원인들에게 큰 도움이 돼요. 영어와 중국어에 능통한 직원들이 있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통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2층으로 안내하고 있어요.

유현송 2층 지원센터에 13개국 언어의 통역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어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통역가와 동행하면 전화 통역 서비스보다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 편리하죠.

소규모 센터, 고층으로 쌓은 유대

유현송 안산이 아닌 지역에 사는 직원이 많아요.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해보니 시간이 오래 걸려서 요즘은 집



이 가까운 직원 3명과 카풀로 함께 출근하고 있어요.

하리원 보시다시피 공간이 다른 출장소에 비해 협소해요. 업무 공간이 좁아서 책상이 붙어있고, 탈의실이 없어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점이 특히 불편해요.

유현승 별도의 휴게 공간이 없어서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이 아쉬워요. 센터장 사무실 없이 직원들과 가까이 있는 곳이 흔치 않죠. 바로바로 소통할 수 있는 건 장점입니다만. 하하.

성창영 공간이 작아 옆자리에서 하는 말이 다 들리다 보니 다른 창구의 민원 업무도 즉시 돕고는 해요.

하리원 적은 인원이 많은 민원을 모두 처리해야 하니 한 사람이라도 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인지 저희 직원들 사이가 굉장히 끈끈해요. 유대감으로 근무한다고나 할까요.

다문화특구, 공존의 본보기가 되다

유현승 안산시는 다문화특구로서 재한외국인 주민 지원이 활발하고 다른 지자체에 본보기가 되는 도시예요.

박혜성 반장 특히 안산에는 재중 동포와 중국 이주민이 많은데, 가족 단위가 많다는 게 특징이에요. 또 원곡동에는 중국 식품 수출입 등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업가가 밀집해 있고요.

유현승 중국 출신 외에도 아주 다양한 구성원이 거주하는 곳이 바로 안산이에요. 사할린 동포 주거단지도 있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이주민 등 출신 국가가 다양해요.

권순길 전국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라 건물에 늘 사람으로 북적여요. 그만큼 업무가 많지만 이주민을 위한 종합 기관으로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창영 원곡동 주민들은 고잔동에 위치한 안산출장소보다플러스센터가 더 가까우니까 “가까운 데 있으니 좋다”고 말씀하세요. 출퇴근길에 먼저 알아보고 인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동네 주민이 된 느낌이에요.

Mini Interview

유현승 센터장

올해 1월 플러스센터에 부임해 햇수로는 제가 막내라고 할 수 있어요. (웃음) 센터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이 부족하지만 자리가 가까이 붙어있어 직원들을 속속들이 알 수 있고 친밀감이 높다는 게 장점입니다. 현재 좁은 복도에서 민원인들이 대기하여 복직일 때가 많은데 대기실과 편의 시설을 확충하는 공사가 마무리 되면 편의성이 훨씬 커질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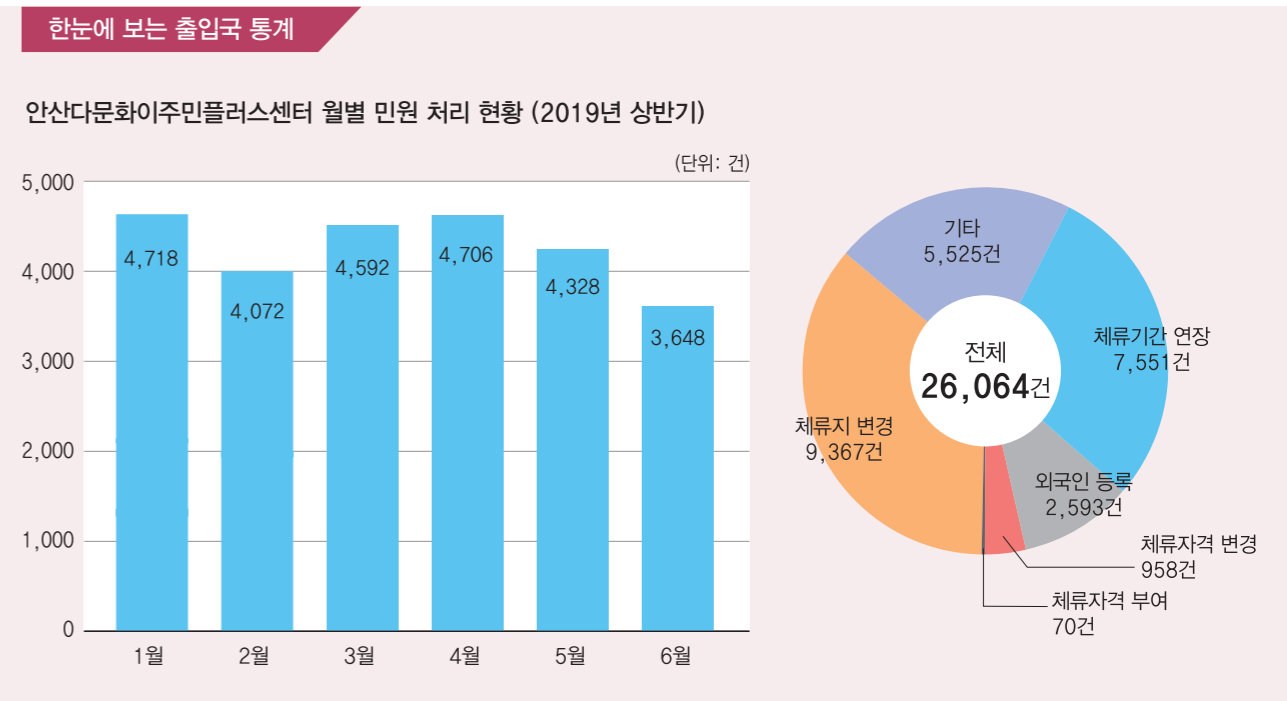
채영제 자원봉사자(중국 출신) 안산이 이주민 아동에 대한 보육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중국 음식점과 식료품점이 모여 있는 곳이라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살기 편해요. 가까워서 지내면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이제 저도 자원봉사를 하며 한국어와 중국어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 기뻐요.

유현승 안산시에서는 기존 이주민은 물론 초기 정착민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 현재 플러스센터의 시설 확충을 위한 공사도 한창이에요. 공사가 끝나면 더 쾌적하고 편리한 곳으로 거듭날 예정이라 기대가 큼니다.

8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인 3층 공간에는 민원인 대기실과 공용 회의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제 민원인들은 좁은 복도가 아닌 쾌적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 기존 4층의 좁은 공간에 있던 수입인지



판매소와 증명사진 촬영 설비도 3층으로 옮겨올 계획이다. 이렇듯 재한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안산시와 관계 부처는 시설을 확대하는 한편 지원과 홍보를 지속해 가고 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고민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기에 안산은 어느덧 공존의 본보기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제1회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

국적 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수여받을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개정 국적법 시행(18. 12. 20.) 이후, 1월 21일 서울시 거주 귀화허가자 65명을 대상으로 첫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하 영상을 통해 “정부는 여러분 한 사람 한사람이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한국인이 되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법무부-과기정통부, 인공지능식별추적시스템 구축사업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30일 금년부터 2022년까지 ‘인공지능(AI) 식별추적시스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안면 인식만으로 신원 검증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공항 출입국 심사를 간소화하고, 이상행동을 보이는 사람을 자동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출입국 공간에서의 안전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려인 동포 및 지원 단체 관계자 간담회



차규근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장은 2월 22일 경기도 안산시를 방문하여 고려인 및 동포지원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차규근 본부장은 4세대 이후 동포들이 재외동포(F-4)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외동포법 개정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동포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특별귀화 증서 수여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는 2월 27일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허위, 최재형 선생 등 독립유공자 19명의 후손 39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특별귀화 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재한 외국인 독립기념관 릴레이 탐방



재한 외국인들이 3·1 운동부터 임시정부수립까지의 과정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공유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사회통합을 다지기 위해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는 3월 5일부터 약 4주 간에 걸쳐 전국 600여 명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총 15회에 걸쳐 독립기념관 탐방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주재관 회의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는 5월 9일부터 이틀간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전국 22개 출입국기관장과 17개 해외공관 비자담당 주재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주재관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 증가, 국내 체류 방편의 난민신청자 급증 등 현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전문가(농림축산검역본부 김용주 박사)를 초청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권평오 KOTRA 사장을 초청하여 「우리 무역 · 투자 정책과제와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외자 유치 1,700억 원 돌파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는 2013년 5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도입 이후, 올해 6월까지 누적 1,706억 원의 외자 유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유치된 투자금은 전액 스마트공장 구축 등 국내 중소기업의 시설 현대화에 지원되고 있으며 '18년도에는 195개 중소기업의 시설 현대화 사업에 사용되어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 430여 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실태 점검



차규근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장은 6월 3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충북 괴산군을 방문하여 지자체 의견을 청취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직접 농업활동을 함께 하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불법입국 · 취업 알선 브로커 집중단속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는 3월부터 4주 동안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입국 · 취업 알선 브로커 46명, 불법고용주 93명, 불법취업 외국인 498명 등 총 635명을 적발하였으며, 5월부터 4주 간 브로커 46명, 불법고용주 39명, 불법취업 외국인 536명 등 총 621명을 적발하였고, 특히 직업소개소 2곳에 대해서는 최초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란?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한국산업은행 운영 공익펀드 등 투자 대상에 외국인(배우자 및 미혼 자녀 포함)이 5억 원 이상 투자하면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 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공존〉
이벤트

퀴즈 풀고, 영화 보고 유익한 정책 정보는 덤!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영화예매권 10매를 드립니다

응모기간 **8월 19일 ~ 9월 6일**

응모 시 성명, 연락처와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를 보내주세요.
(미제출시 자동 탈락)

상품 정답자 중 5명을 추첨하여 총 10매의 **영화 예매권**을 보내드립니다.

당첨발표 9월 9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페이스북, 〈공존〉 9월호에 게재)

참여방법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서
퀴즈 확인 후
메일로 정답 보내기
kwakes35@korea.kr

이달의 퀴즈

- 1 등록외국인이 체류지가 변경될 경우
출입국 기관 또는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에 며칠 이내로
신고해야 할까요?
- 2 외국인이 여권을 재발급 받아, 온라인으로
여권정보 변경 신고를 할 경우 어느 홈페이지를
이용할까요?
- 3 등록외국인이 공항·만에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은 몇 세부터 일까요?
- 4 외국인이 외국인등록 후 등록증이
발급되기 전 본국에 다녀와야 할 경우
출입국기관 또는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 어떤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까요?
- 5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은
비자연장이 몇 개월 이내로 제한될까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메뉴 '뉴스·공지' → '홍보자료' 게시판에서도 〈공존〉을 구독할 수 있습니다!

영화로 배우는 한국



기생충 PARASITE, 2019

장르 드라마(131분)
감독 봉준호
출연 송강호, 이선균, 조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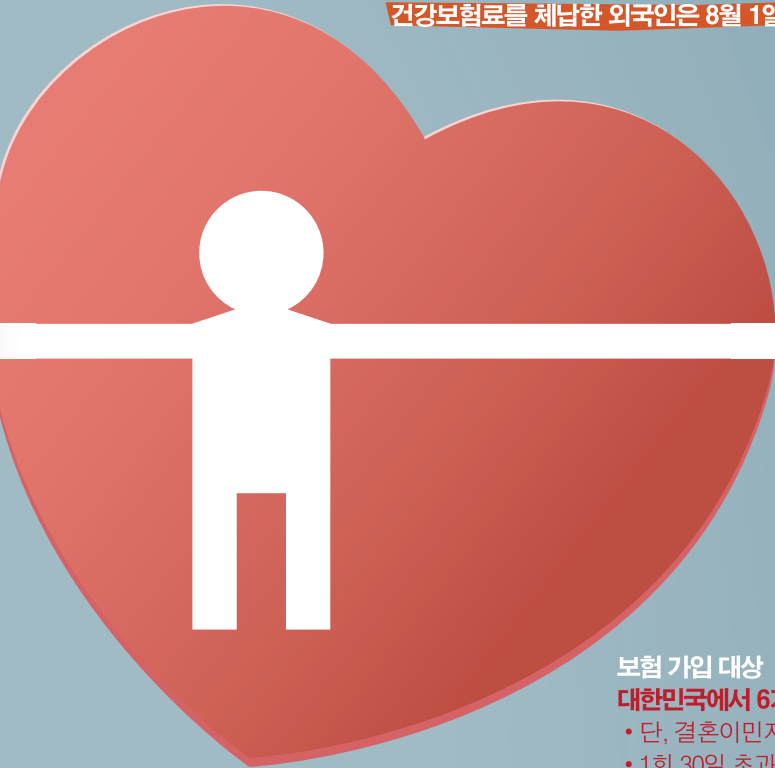
영화 〈기생충〉을 이해한다면 당신, 뺏속까지 한국인

영화 〈기생충〉을 연출한 봉준호 감독은 제작발표회에서
“아마도, 외국 분들은 이 영화를 100%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워낙 한국적인 영화다. 한국관객들이 봐야 뺏속까지 이해할 수 있는
디테일들이 포진돼 있다.”고 했다.

얼마 전 100년 역사의 한국 영화계에 큰 선물을 안겨준 블랙 코미디 영화, 《기생충》(Parasite)은(봉준호 감독) 지난 5월 제72회 칸영화제 공식 경쟁작으로 출품되어 황금종려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동안 국제 영화제에서 세계 영화인의 찬사를 받고 수상을 한 작품도 꽤 있지만 이번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은 그 중에서도 으뜸이라는 평가입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식구 전원(백수(무직자)인 가족의 장남 '기우'가 친구의 소개를 통해 유망 벤처기업 CEO 딸의 고액 과외 면접을 보러가면서 시작되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평론가 허남웅 씨는 “이 영화에서 살기위해 벌이는 투쟁은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구도가 아니라 못가진자와 더 못가진자 사이에서 벌어진다”고 설명합니다. 감독은 영화 제목 〈기생충〉이 암시하듯, 영화 속에서 부의 양극화를 극명히 보여주기 위해 두 가족이 살고 있는 공간을 반 지하와 유명건축가가 설계한 2층 건물로 설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감독은 “분명히 지하인데 지상이라고 믿고 싶어지는 공간, 그 묘한 반지하만의 뉘앙스는 서구 영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지점”이라고 설명합니다. 눅눅하고 습한 곰팡이 냄새가 밀려오는 영화 속 반지하 공간은 아직도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꽤나 익숙하게 외닿는 삶의 터전이니가요. 또 영화내용 중, ‘짜파구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외국인에게 낯선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동네 마트에서 구매하는 간편 면 조리 제품,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한번에 끓여먹는 것으로 한 때 한국인들이 즐겨먹는 이색 라면 조합이었습니다. 제작진은 이 대사를 영어 자막으로 번역하는데 라면과 우동을 합친 단어 ‘람동(Ramdong)’을 찾아내 아주 만족했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연장하세요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자동 적용되며,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은 8월 1일부터 비자연장이 제한됩니다



보험 가입 대상

대한민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 단, 결혼이민자는 입국 후 외국인등록을 마치면 즉시 가입
- 1회 30일 초과해 출국할 경우 재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상 체류시 가입 가능
- 유학(D-2), 일반연수(D-4) 자격 외국인은 2021년 2월 28일까지 유예

보험 가입 절차

별도 신고 절차 없이 공단에서 가입 처리

- 국내 체류지(거소지)로 건강보험증과 보험료 납부 고지서 발송

보험료 및 보험급여

소득/재산에 따라 개인별 산정(2019년도 기준 113,050원 이상)

- 단, 배우자 및 만 19세 미만 자녀가 함께 거주하여 가족단위로 보험료 산정을 원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보험급여 혜택

보험료 체납시 불이익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 중단

- 혜택이 중단되는 기간에도 보험료는 매달 부과

전국 38개 출입국 기관에서 비자연장 제한(6개월 이내)

- 미납 3회까지는 단기간(6개월 이내) 비자연장 허용, 4회째는 체류허가 불허